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 오직 여호와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제목 : 이삭이 경외하는 하나님 성경: 창세기 31장 40-42절

Tag:

40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불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41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이십 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십사 년, 외삼촌의 양 떼를 위하여 육 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열 번이나 바꾸셨으며

42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이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제 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창31:40-42)

창세기 31장은 파란만장한 야곱의 이야기이다. 야곱의 이야기는 실로 우여곡절이 많다. 험악한 인생을 살아가는 야곱의 아슬아슬한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도 교훈이 된다.

야곱은 태에서부터 무한경쟁의 삶을 경험한다.

생물학적인 근거에 의하면 쌍둥이는 뒤에 나온 아이가 더 튼튼하다고 한다. 아버지 이삭은 첫째 아들 에서에게 강인함과 남자다움을 요구했는데, 아마도 그것은 이삭의 평생의 숙원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삭은 하나님께 대한 경외감으로 유명하다. 이런 하나님께 대한 경외감은 이삭이 산채로 아버지에 의해 죽임을 당해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질뻔한 사건과 관계가 있을지 모른다. 그때 이삭은 오직 자신의 생사는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깊이 체험했을 것이다.

이삭의 이런 절대적인 경외감이 야곱에게 축복이 되어 일하는 것 이상으로 형통하게 되었다.

불행하게도 야곱에게는 편애에 대한 피해자 의식이 있었으며, 그것

은 급기야 아버지를 속이는 행동으로 표출된다. 야곱은 한번의 속임수로 향후 20년 세월을 사는 동안 라반에게 10번 속임을 당한다.

안타깝게도 첫 번째 속임은 사기결혼 이었다. 그는 사모하는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꼬박 7년을 데릴사위 노릇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여인을 얻지 못한다. 결국 다시 7년동안 데릴사위 노릇을 하겠다고 계약한 다음에야 원하는 결혼을 하게 되지만, 그 댓가는 14년 중노동이었다. 어마어마한 고리대금업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머지 6년동안 모두 갚아 주셨다. 6년 동안 총 10번의 임금 재협상을 하면서 그때마다 억지 부당 계약에 시달렸지만, 하나님은 그럴때마다 불리한 조건의 야곱에게 복을 주셔서 오히려 야곱의 재산이 더 많아지도록 해 주셨다. 야곱은 자기가 피를 부리는 줄 알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무한정 복을 주시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러자 야곱은 놀라기 시작한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시는가? 단순히 십일조 약속 때문에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시는가? 고민하던 야곱의 뇌리에 떠오르는 것이 있었다. 그것은 아버지 이삭의 축복이었다.

하나님을 그토록 경외하던 이삭은 가는 곳마다 블레셋 사람들과 다투지 아니하였고, 오로지 하나님만 의뢰하며 살았다. 그리고 오늘날 그 결과 야곱이 어마어마한 복을 받게 되었다.

그러자 라반과 그 아들들의 눈빛이 변했다. 틀림없이 야곱이 뭔가 꼼수를 부려 자기들의 재산을 빼 돌리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비리를 캐 보지만 딱히 나오는 것이 없고, 자꾸 임금협상을 반복해 보지만 결과는 야곱에게 더 좋은 결과만 나왔다.

야곱도 눈치를 보니 분위기가 심각하다는 것을 느끼고 아내들을 설득하기 시작한다. 아내들도 자식들이 즐비한데 언제까지 아버지 곁에 있을 수 없다는 것에 동의한다.

그믐날을 선택해서 야반도주를 시도하지만, 3일만에 들키고 만다.

그 와중에도 라헬은 드라빔을 흠치는 만행을 저지른다. 욕심장이에

공주병 증세가 심한 라헬! 트러블메이커. 레아가 그토록 분노하는 이유를 알아야 한다.

라반은 기세등등하게 아들들을 몰아 야곱을 쫓아가 잡는다.

그러나 그 전날 밤 하나님은 라반의 꿈에 현몽해서 야곱에게 손을 대지 말고 고품게 보내라는 명을 받는다.

라반이 입장에서 본다면 두 딸과 손자들까지 다 빼앗기는 형국이고, 충실한 복덩이 데릴사위를 잃어버리는 형국이다. 이상하게 야곱은 재산을 불려주는 자였기 때문이다. 야곱은 오직 일꾼 몸 하나의 노동력만 20년간 제공한 것이 전부 아닌가?

경외하는 아버지에게서 나온 초라한 한 사람의 위력을 잘 깨닫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자녀가 어떠한 복을 받게 되는지를 똑똑히 보자.

부모의 경외감이 자녀를 지킨다. 비록 야곱이 공격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아비 이삭의 경외를 기억하시고 라반의 갑질로부터 야곱을 지켜주셨다.

42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이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제 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53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고 (창31:53)

이제 라반과 야곱이 계약을 맺을 때도 라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부르고 나홀의 하나님을 부르고, 조상의 하나님을 부르면서 계약한다. 그러나 라반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을 공경하지 아니한다. 하나님께 대한 예절에 대해서 신중하지 아니한다.

반면 야곱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 제사한다. 십일조의 약속을 잊

지 아니한다. 반드시 하나님께 입술로만 제사하지 않았다.

그는 벤엘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였다.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억하셨다.

54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창31:54)

야곱은 하나님께 예배하였을 뿐만 아니라, 형제들을 불러 대접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대접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누군들 귀찮고 힘들 일을 좋아하겠는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희생적인 삶을 살아간다. 봉사하는 것을 귀하게 여긴다. 그래서 복이 된다.

만약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한다면 우리는 쉽게 마귀에게 넘어간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축소된다. 겨우 겨우 구원은 받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예배하는 삶은 마귀와 싸워 이기는 것이지 지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 우리가 복을 받지 않는다면 그것은 저주일 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힘써 하나님을 경외하여야 한다. 우상을 버려야 한다. 라헬은 아버지와 남편을 속이면서까지 우상에게 집착하다가 일찍 세상을 떠났다는 것을 잊지 말자. 우상숭배는 백해무익이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는 장수하지 못한다. 아멘.

<찬양예배>

제목 : 이영훈교수의 환상의 나라; 대한민국의 건국 **성경:** 사무엘하 16장5-13절

Tag:

5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르매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6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 때에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7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8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9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10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11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12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13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

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
리더라 (삼하16:5-13)